

민선 5기 3년 결산

4 지방의회 성과와 과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 민생입법 제·개정 활발 긍정적

민선 5기와 함께 출범한 제6대 광주시의회와 제9대 전남도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았다. 역대 의회와 달리 활발하고 역동적인 의정 활동 속에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에 예측된 탓에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역대 의회와 달리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와 상임위원 ‘정책 네트워크’ 활동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총 68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대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전한 중앙 예측 ... 지역특성 맞는 조례제정 힘들어

도정 질문·조례안 발의 안한 의원 다수 ‘의정 부실’

여기에 ‘빛고을 문화관’ 건립과 ‘광주 FC’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부 조례들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잇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와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인사검증공청회 조례는 위법성 시비를 피해 ‘인사청문회’ 대신 ‘검

증’을 넣는 등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쳐 진행되고 있고,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묵살해 현재 ‘법정 다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역사외곽에 대해 발 빠르게 강력한 대응을 펼쳤고, 전

국 광역의회 및 지방의회를 돌며 5·18 전국화를 위한 노력을 펼친 것도 성과다.

◀전남도의회=전반기 의장 구속으로 인한 ‘의장 낙마’와 포커 도박 의원 불구속 기소를 비롯, 8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옷을 벗는 등 9대 의회 시작부터 잡음이 일었다.

반면, 10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돼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했고, ‘일본 일답’ 방식의 도정 질문을 질의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후반기 들어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3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9명이나 됐고, 본

회의장에서의 도정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25명(전반기·후반기 의장 제외)이나 되는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부진한 의정활동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본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통합 진보당 안주영(비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이후 ‘충동적 호남 표표’라고 발언한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 세례를 퍼부어 소동이 빚어진 것이다. 후반기 의장단은 향후 채신과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감시 및 대안 제시를 강조하고 있어 남은 1년동안 전남도의회의 달라진 모습이 기대된다. (글)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시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정치 펴겠다”

“불필요한 규제 없애 서민경제 활성화”

조호권 시의회 의장

5·18역사외곽 등 적극 대응
민주·인권·평화 도시 기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서민과 함께하는 민생활동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2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6대 의회의 남은 1년은 ‘생활정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동료 시의원들과 힘을 모아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역경제가 일자리 부족과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민생정치

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봉사활동과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6대 의회 3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6대 의회 개원 이후 지역현안 문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역대 의회와 달리, 의원 연구모임·정책토론회 등을 운영하며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6대 의회 후반기 1년은 찾아 가는 민생활동을 통해 새로운 통합의 생활 정치를 펼쳤고, 정치적으로도 광주시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이 중 5·18 역사외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5·18 전국화를 위해 펼친 노력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6대 의회 남은 1년도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재무 도의회 의장

농산어촌 활성화 조례 주력
F1 등 현안사업 감시 강화



“활발한 의원 정책연구를 통해 도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무 의장은 제 9대 도의회 향후 과제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연구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도의회는 ‘전남도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장은 “농민을 위해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조례’와 ‘농산어촌

체협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또 도의원 정책연구 모임인 ▲농어촌 발전연구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 ▲한옥 활

성화 연구회 ▲공유재산 연구회 포럼 ▲명품도시연구회 ▲지방재정 정책 연구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포럼 등 10개 연구단체를 결성, ‘공부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했다.

김 의장은 “이들 정책연구 모임은 전문가와 토론 등을 통해 각 분야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다양한 정책도 만들어냈다”면서 “남은 의정 기간에도 정책연구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임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집행부 감시 기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강화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F1 대회와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등 전남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가

KTX역 송정역 단일화 추진위 발대식

KTX 정차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 주민을 중심으로 한 ‘KTX 정차역 광주 송정역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26일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이날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송정종(민·광산 3)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가 하남역 분기 후 광주역 진입방안 운영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광주 KTX정차역은 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자치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주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벨평화비전스쿨 강좌 개최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이사장 최영태, 상임대표 최경환) 부설 ‘노벨평화비전스쿨’은 29일 오후 4시 광주 북구 신안동 민생평화광장 강당에서 중·고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노벨평화비전스쿨 제4차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남대 인문대학장과 광주·전남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인문학을 배우자’ ‘인문학의 재미’ ‘문화이란? 철학이란? 역사란?’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노벨평화비전스쿨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꿈과 비전, 진학과 진로선택, 존경받는 인물의 실제 사례를 통한 세계관 확립,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unam-dong residential development. Title: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Features: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Location: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Area: 분양면적 7008㎡ (11가구). Price: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Contact: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Title: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ervices: 부실채권(NPL) 매각, 부동산 성공 투자. Contact: 상담 010-7570-7525.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Title: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Services: 상가건물, 대지/전답, 기타. Contact: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Title: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Services: 상가주택, 공장및참고, 토지매매. Contact: 문의 010-4911-4989.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Title: 영천부동산. Services: 상가건물, 전원주택, 급히 파실분, 비밀보장. Contact: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